Protecting Our Planet

KC NEWSLETTER

With New Technology

ISSUE 71 · JULY 2015

KC NEWSLETTER

I N D E X

Uzbekistan 유리병 생산 Project 현장방문

KC Energy Technology 이사회 및 주주회의

KC코트렐 사업부 전략회의

NTKR, KCAF 상반기 경영회의

소각3사 관리 Unit 회의

CoP: PT Library

Uzbekistan 유리병 생산 Project 현장 방문 -Feasibility Study(타당성 조사)

KC Glass의 김정완 대표이사 외 4명은 우즈베키스탄 유리병 생산 Project 진행을 위해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현지를 방문하였다.

먼저 공장설립 추천 위치인 Navoi를 방문해 입지조건을 살펴보았다. 또 Tashkent에 위치한 동종 업체인 Oyna, Campalia를 방문해 생산 설비를 직접 확인하고 품질수준 및 판매현황 등 전반적인 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유리병 시장 현황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로 고품질의 유리병은 러시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내 생산품의 일정량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주변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가장 수요가 많은 맥주병의 경우 일회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경량화된 고품질의 유리병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 하는 추세로 유리병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인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JV(Joint Venture : 합작투자)에 앞서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현지에 진출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KC Glass는 지속적이고 정확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이번 방문을 마쳤다.

KC Energy Technology 이사회 및 주주회의

KC코트렐은 지난 7월 17일 제주도 상효원에서 중국합작법인인 KC Energy Technology의 이사회 및 주주 회의를 진행하였다.

KC Energy Technology 설립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이사회에서, KC이사진과 중국측 이사진은 주주협약서와 신규법인의 정관에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모인 양측의 이사진들은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회사의 향후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중국 측 대표이사인 Mr. Ge는 Thank You Letter를 통해 “제주도에서 열린 첫 이사회를 아주 뜻 깊게 마무리해서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 3년간 JV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하였다.

새롭게 시작하는 KC Energy Technology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KC코트렐 사업부 전략회의

지난 7월 20일 KC코트렐 상암 사옥에서 사업부 전략회의가 진행되었다. KC코트렐 전 사업부 및 경영진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실적보고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과 프로젝트 발표를 중심으로 상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계획이 이루어졌다.

각 사업부별로 시장 현황과 경쟁사 동향을 분석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조직 및 인원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KC코트렐 서동영 대표이사는 '일의 질적인 변화'를 주제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전략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사 대비 우월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반기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NTKR, KCAF 상반기 경영회의

7월 27일에는 놀텍코리아(NTKR)와 KC에어필터텍(KCAF)의 상반기 경영회의가 진행되었다.
KC그린홀딩스 이태영 대표이사와 KC코트렐 서동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상반기 실적 분석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NTKR과 KCAF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술력을 강화하고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에 모두가 공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소각3사 관리 Unit 회의

지난 7월 24일 KC환경서비스,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 3개 회사의 관리Unit 회의가 창원에서 진행되었다. TOP 활동의 일환이었던 영업, 운영/공무, 안전/환경 분야의 정기적 미팅이 회사 간 시너지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리 Unit 역시 이와 같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 날 회의는 KC환경서비스 이석구 전무를 중심으로 3사 관리 팀장, 담당자와 KC코트렐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 배수정 선임, 그리고 KC그린홀딩스 전략경영팀 성창제 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미팅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대응, 통상임금 이슈 등 노동법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김상률 노무사의 교육을 듣고, 그 동안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동 사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를 통해 3사의 노동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앞으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 직급 부여 체계, 구내식당 운영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KC코트렐 경영지원팀에서는 지속적으로 3사의 관리 Unit을 서포트하기 위해 3사 관리 현황과 정보를 종합하여 통합된 운영 지침을 제안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KC에코에너지 김도연 팀장은 '다른 팀에 비해 함께 의논하고 공유할 내용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모두에 적용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실용적인 아이디어도 많았고 단일 회사에서 진행하는 회의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관리 Unit의 다음 회의는 서울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의를 만들어 나가자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CoP: PT Library

K-ONE 내에 임직원들을 위한
전자도서관(PT Library) CoP가 개설되었다.
전자도서관은 개인이 소장한 PT파일 원본을 공유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통일성 있는 자료활용을 통해 KC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자료의 공유를 통해 지식경영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갈 수 있는 CoP이다.

회사소개, 설비-PT, 설비-사진, Reference, 자료실 로 구성된 전자도서관에는 사진과 PT 파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게시판별 관리가 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전 임직원이 외부 영업 시 사용하는 파일을 공유하여 revision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Reference 관리기능을 더하여 종료된 프로젝트는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분리된 폴더에 보관하도록 하여 수행한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용이하다.

전자도서관은 무엇보다 임직원 개개인이 참여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KC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풍성해지는 전자도서관이 되기를 희망한다.

A Global Leader

KC NEWLETTER

In Green Business